

광주경중, 이승재 영화평론가 초청 금융조찬포럼

“위기 이겨낼 해법, 기술 보다 ‘본질’”

“위기 상황일수록 새로운 전략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승재 영화평론가는 지난 2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626회 금융조찬포럼에서 ‘영화로 보는 소통과 혁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현재 한국 영화계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진단하고 기업인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했다.

이 평론가는 “한국은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로 영화 소비가 활발한 나라”라며 “과거에는 연간 4편 이상을 극장에서 관람할 정도로 ‘영화 강국’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극장 관객 수가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는 급격한 관람료 상승과 콘텐츠 소비 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어들고, OTT 플랫폼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주요 국가 중 극장 회복 속도가 가장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그가 제시한 해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바로 ‘본질로의 회귀’다.

이 평론가는 영화의 본질을 “관객을 끌기까지 가능한 힘”으로 정의했다.

기술이나 자본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일 뿐, 핵심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문제는 의형적 요소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본질이 약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평론가는 “기술이나 자본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야기와 상상력”이라며 “관객이 원하는

영화산업 위기서 찾은 구조적 문제와 혁신 방법

“성공은 기술이 아닌 이야기와 설득력이 만든다”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공감과 감동”이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영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작품이라도 물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실패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건에서도 이야기의 힘이 강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설득했느냐’라는 점이다.

특히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작업물들을 사례로, 기술적 한계를 상상력으로 보완한 성공에 대해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제임스 캐머런은 기술적 한계 속에서도 상상력과 서사로 승부한 작품을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영화 산업을 이끄는 거물이 됐다”며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관점, 사고의 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봉준호 감독의 사례를 가져와 그의 작품에 대해 ‘낯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보다, 익숙한 틀을 기반으로 변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통해 관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항상 쉽고 대중적이지만 동시에 세련됐다”며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익숙함 속에서 완전히 다

른 경험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화 기생충에 대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한 극히 드문 사례”라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두 거장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경쟁력을 가르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환경,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리더의 사고 방식과 방향 설정에 있다”며 “기술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많은 조직이 실패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학습의 속도를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작게 실패하고 빠르게 개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경쟁력이었지만, 지금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본질에 집중하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지난 24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19회 금융조찬포럼에서 이승재 영화평론가 ‘영화로 보는 창의성과 콘텐츠 경쟁력’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공공조달 ‘지방 우대’ 신설 비수도권 기업에 기회 확대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평가에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밝혔다.

정부는 물품·용역의 입찰·낙찰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물품·용역 적격 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평가 항목인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신설한다.

본사 또는 공장 이전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 차등 부여되며,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아울러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조달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도 여성·장애인·사회적·청년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해 허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기업 대상 소액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구매 대행해 구매 편의성을 높인다.

소방물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는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경쟁 예외 범위를 넓힌다.

연합뉴스

현대차, 아이오닉 V 최초 공개...중국시장 공략

현대차가 ‘아이오닉 V’를 앞세워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한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중국국제전람전시순의관에서 열린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V는 중국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상품성을 갖춘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번째 중국 전략형 모델이다.

아이오닉 V는 현대차의 전동화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급스럽고 정숙한 주행 감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으며, 현지 업체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현지에 최적화된 플랫폼과 배터리가 적용됐다.

현대차는 이날 지속적인 투자,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 등 중국 시장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합작 파트너인 베이징 자동차그룹과 함께 베이징현대에 80억 위안(한화 1조5500억원)을 공동 투자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나섰다.

우선 베이징 현대의 연간 50만대 판매를 목표로 향후 5년간 20종의 신규 모델을 중국 시장에 투입해 제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 EV 판매·서비스 혁신 및 현지 기술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핵심 판매 시장이자 장기적인 글

“한 번 충전에 600km”...‘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우수한 주행 성능 기반...안전·편의사항 대거 탑재



로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심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아이오닉 V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 ‘디 오리진’에 따라 ‘최고의 첫인상’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디 오리진은 중국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맞춘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의지를 담고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V의 전면에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라인이 돋보이는 후드 디자인을 적용하고, 차량의 좌우 끝에 날카로운 형상의 옛지 라이팅을 배치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는 물론 차체가 더욱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구현했다.

측면부는 하나의 곡선으로 이뤄진 독특한 실루엣이 시선을 사로잡고, 프레임리스 도어와 다이아몬드 커빙으로 완성된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공력 휠이 세련된 느낌을 준다.

후면부는 얇은 리어램프가 차량의 좌우 끝에 각각 가로로 배치돼 날렵한 인상을 주며, 스포티한 디자인의 스킵드 플레이트를 더해 역동적인 느낌을 극대화했다.

현대차는 세밀한 사시 튜닝을 통해 정확하고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구현했으며, 후륜 서스펜션의 부싱 구조를 최적화해 노면 요철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했다.

아이오닉 V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현지에 최적화된 상품성을 확보했다. 합작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플랫폼이 적용됐으며, 중국 대표 배터리 제조사 CATL과 협업한 배터리가 탑재돼 CLTC 기준 1회 충전 시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전, 베트남 원전·전력시장 공략 ‘속도’

김동철 사장 현지서 협력 검토 MOU...인프라 협력 확대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원전 및 전력 인프라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베트남을 방문, 정부 및 국영기업 핵심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전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다졌다.

앞서 한전은 지난 22일 베트남 주석궁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

업에너지공사와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를 체결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4차 간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기반도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의 연장선이다. 향후 신

규 원전 건설사업 협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어 23일 열린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동철 사장은 “한전은 원전과 에너지 신기술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며 현지 시장 참여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베트남 전력공사와도 ‘전력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HVDC(초고압 직류송전)와 AC 송전망 구축·운영 등 전력계통 분야는 물론 에너지 신기술과 투자 협력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건설링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